

한국학의 정보화·세계화 산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이 보편화되면서 국가간 정보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문화 정보는 하나의 국가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데이 터베이스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학정보센터를 찾아가 봤다.〈글/ 박민식 기자〉

한

국학정보센터는 청계산의 좋은 경치와 정보 센터 가족들의 좋은 인상 때문이지 처음 방문임에도 친근감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센터의 운영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선 전산실장(국어 정보학 교수)를 통해 정보센터의 활동, 비전 등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자세히 소개받을 수 있었다.

김병선 전산실장은 “한국학정보센터는 한국학 기초자료 수집, 한국학 자료의 전산정보화 및 DB개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등 한국학자료를 전산화하여 국내외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부설기구”라고 소개했다.

현재 한국학정보센터는 전산정보실, 백과사전편찬실, 편수출판실, 운영과 등 3실 1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어학, 한문학, 문헌정보학 등을 전공한 20여명의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학 DB개발의 실무책임조직인 정보전산실은 한국학자에 대한 정보화마인드 확산교육, 한국학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개발, 전산망 관리·운영, 한

국학정보의 온라인오프라인 봉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 한국학’ 개발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한국학에 대한 자부심 충만

한국학정보센터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디지털 한국학([Http://uniweb.unitel.co.kr:8085](http://uniweb.unitel.co.kr:8085))에 대한 센터 연구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였다. 김 실장은 “디지털 한국학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문화와 한국학 디지털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한국학정보센터와 삼성SDS가 공동으로 개발한 인터넷상의 한국학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했다.

디지털 한국학은 지난해 3월 개발에 착수하여 6월부터 삼성SDS의 유니텔망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한국문화와 한국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화사랑방, 한국문화강좌, 한국의 역대인물, 조선조 방목, 삼국사기, 한국학 연구동향 등이다.

문화사랑방은 겨레의 얼과 슬기로 빛어낸 한국문화를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민 우리 문화의 쉼터로 한국의 옛가구, 가볼 수 없는 북한지역 문화재 그리고 기념일 등이 다양한 화상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한국문화강좌는 학계의 권위있는 교수와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며, 한국과 한국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준다. 고사성이 강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형조 교수가 맡고 있으며, 명심보감 강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유완빈 교수 가 맡고 있다. 의문점은 Q&A를 통해 질문할 수 있



▲ 김병선 실장은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한국적 정보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DB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학정보센터 직원들의 모습 (왼쪽에서 세번째가 김병선 실장)

으며, 해당 강의자의 대답도 들을 수 있다.

한국논저목록은 국내외 모든 한국학 관련 논저를 전세계 한국학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문학 박사 학위논문 1,100여건과 어학박사 학위논문 600여건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사, 철학 분야를 거쳐 인문·사회 분야의 모든 석·박사학위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예정이다.

한국의 역대인물은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1만 5천여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정·사진 등을 비롯하여 각 인물에 대한 화상 정보가 동시에 서비스 된다. 한편,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위하여 특정 주제나 사건 등에 관련된 인물들을 쉽고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조선조 방목은 조선시대의 문과 과거 급제자 1만 5천명에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급제자들마다 자, 호, 출생년도, 본관, 품계,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 형제, 시험등위, 시험시행연도, 소과합격년도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분류별 검색을 지원한다.

분류별 검색에서는 왕대별, 성씨 및 본관별, 거주지별 검색 등이 가능하며 이는 다시 이름순과 연대순으로 정렬 제시된다. 검색의 편의를 위해 연산자를 사용하는 복합검색체계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삼국사기는 정신문화연구원의 정구복교수가 위촉 책임 연구자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로 삼국사기 원문과 주석, 쉽고 정확하게 읽겨진 번역문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연구동향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최신의 한국학 연구동향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기능, 쓰기와 삭제 기능 등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 사용자도 운영자처럼 필요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다. 국내외 학술대회 대학 및 연구기관, 신간도서, 자료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디지털한국학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전세계인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어정보학의 선구자

한편 한국학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는 김 실장



〈그림〉 디지털한국학 홈페이지 화면

의 이 분야에 대한 신념, 노력 그리고 정보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전북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국문학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국어와 전산학' 강의를 시작하였다. 또 한국어 전산학회의 연구이사로서 옛글자처리, 폰트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코리언 컴퓨터처리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한국, 북한, 연변의 한국어 통일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1981년부터 개인적으로 컴퓨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국어 문헌자료의 처리방법', '새로운 옛글자 한글처리 시스템에 관하여' 등을 저술하였고 '폰트편집 프로그램', '옛글자 폰트 자동 생성 프로그램', '색인음 편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직접 개발할 만큼 국어학 전산화에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해방이후 한국의 지방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편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병행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한국학 전산화에 대한 표준화, CD-ROM 개발, 국어전산화에 대한 교육, 영문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김 실장은 말했다.

그러나 한국학정보센터는 IMF 영향으로 기업에서의 지원이 줄어들어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학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지연될 경우 외국에서 직접 개발하여 국내에 다시 판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